

#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and Preparations for the Later Life Among the Baby Boom Cohort

강인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In Kang(drhome@iscu.ac.kr)

### 요약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노후 준비 정도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성공적 노화 인식이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에서 814명의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2015년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설문지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SPSS WIN18.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인식은 학력,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 정도는 학력, 직업,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성공적 노화 인식이 높을수록 노후를 위한 준비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성공적 노화와 노후 준비에 관한 정책과 서비스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이론적 교육 및 노후 준비에 관한 실천적 프로그램이 함께 병행되어 질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 베이비붐 세대 | 성공적 노화 인식 | 노후 준비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and preparations for the later life among the baby boom cohort. The subject of survey is the baby boomer(from 1955 to 1963) and it was done from May 1 to September 15 in 2016. 814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by SPSS WIN18.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by education level, subjective awareness of economic status, subjective awareness of health condition, marriage status.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reparations for the later life by education level, job, subjective awareness of economic status, subjective awareness of health condition. Third, The higher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was deserved to significantly affect preparations for the later life.

■ keyword : | The Baby Boom Cohort |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 Preparations for the Later Life |

## I.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감소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전되고 있다. 즉,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명으로 총인구의 13.1%이며, 2030년 24.3%, 2040년 32.3%, 2060년 40.1%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24].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노년 부양비와 노년 의료비의 증가, 노동시장의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노년기에 진입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세대로서, 길어진 노년기를 이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준비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고령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2015년 현재 약 728만 명으로 총 인구 대비 14.4%에 해당된다[23]. 이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는 수적으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룬 주역 세대이면서 이전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높은 세대이기도 하다[21]. 이들은 과거에 주로 상실과 빈곤, 소외 등 부정적인 관점에서 인식되었던 이전 노인 세대와는 달리, 노년기를 새로운 도전과 자기실현의 기회로 여기는 보다 긍정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이에 베이비붐 세대는 향후 100세 시대를 앞두고 길어진 노년기를 보다 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성공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는 ‘끼인 세대’로서 아직까지 국가의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노후 준비가 필요한 세대이기도 하다 [10].

따라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인지하는 성공적인 노화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성공적 노화란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인식하고 있는 성공적 노후란 무엇인가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공적 노화란 생애 과정을 거쳐 달성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노년기 이전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나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성공적인 노화를 어떠한 관점에서 인식하느냐에 따라 노년기에 대한 노후 준비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성공적 노화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적 노화의 인식이 노후 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연구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노후 준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노후 준비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한국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를 의미한다. 2010년에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인 1955년생이 일반적인 은퇴시기로 알려진 55세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에 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14].

이와 같이 노년기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빠른 고령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노인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경제적 독립과 교육, 여가 문화, 자기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 노년기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가족 관계에서 대체로 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들에 대한 부

양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가족 부양에 대한 이중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노후는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고자 한다 [19][21][25].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세대와는 다른 기대를 지닌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화에 관한 인식과 준비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10][15][22][26].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급속한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연령, 학력, 경험과 가치관 등에서 다양한 개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에 대한 인식과 노후 준비가 각기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1][18][23][2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노후 준비의 차이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성공적 노화와 노후 준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초기에 생물학, 심리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물리적 안녕과 관련하여 각 분야마다 독자적으로 정의 되어져왔다. 이후 1980년대부터는 고령화와 더불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다 행복한 노년의 모습이 더욱 강조되면서 성공적 노화는 어느 한 차원만으로 설명되지 못하며 다차원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되기 시작하였다[2][28][29].

즉, Ryff[32]는 성공적 노화의 다차원성을 강조하며, 성공적 노화를 ‘자기수용’,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자율성’, ‘환경에의 숙달’, ‘인생의 목표’, ‘개인적인 성장’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Baltes 외[27]는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델을 통해서 성공적 노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Rowe와 Kahn[31]은 ‘질병과 질병 관련 장애의 위험이 낮은 상태’와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 그리고 ‘삶에 대한 활동적인 참여’로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가 강조되면서, 서구 사회 기준의 성공적 노화가 아닌 우리나라 문화 상황에 적합한 성공적 노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4][7]. 강인[2]은 성공적 노화를 신체적 건강, 개인 성장,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가족 지향, 경제적 안녕으로 구분하였으며, 백지은과 최혜경[16]은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 관리, 사회적 자원의 확보, 과시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안정신 외[17]는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척도 개발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관한 다차원적인 요소들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성공적 노화란 다차원적인 요소로 구성되며, 문화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인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성공적 노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노후 준비

고령화 사회에서는 길어진 노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노년기 이전 생애 단계에서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노후 준비란 노년기의 예측 가능한 생활 사건들과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한 자원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년기 이전 단계부터 노후의 보다 높은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조기 은퇴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중년층 또는 노년층 가구의 경제적 빈곤과 노후 소득 준비의 취약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3][9][10]. 그러나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준비가 경제적 측면에서만 대비하는 것으로는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노후 준비와 관련된 연구들은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신체적 정서적, 사회 참여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후 준비가 강조되어지고 있다[5][6][14][32].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후 준비란 은퇴 이후의 소득의

상실에 대한 적응과 자산 관리 등을 의미하며, 신체적인 준비는 건강 유지 및 저하된 신체적 기능성에 대한 관리 및 질병 예방 등을 의미한다. 정서적 준비란 노화에 대한 수용과 심리적인 안녕과 적응을 하는 것이며, 사회참여 준비란 취업, 여가, 봉사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5][12][13].

또한 이러한 다차원적인 노후 준비는 노년기에 성공적 노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5][12]. 즉, 성공적 노화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였다 [1][20][3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후 준비를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참여 준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더 나아가 성공적 노화 인식과의 관계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과 노후 준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노인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6명이 2015년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6개 지역에서 대학교와 직장, 종교기관 및 지인들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1955년생 - 1963년생)에 해당되는 대상에게 설문지 865부를 배포하여 수집하였다. 이 가운데 무응답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총 814부를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성공적 노화 인식

베이비붐 세대들의 성공적 노화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존의 여러 관련 척도들을 분석하여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척도를 개발한 안정신 외 [17]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척도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일상의 안녕’ 6개 문항, ‘심리 사회적 안녕’ 5개 문항, ‘자기 효능감’ 7개 문항의 3개 하위 요인, 총 18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인식 정도가 높다. ‘일상의 안녕’이란 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활동 능력을 의미하며, ‘심리 사회적 안녕’이란 심리적 적응과 인지적 기능,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고, ‘자기 효능감’이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행동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 인식의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 Alpha 값은 ‘일상의 안녕’이 .86, ‘심리 사회적 안녕’이 .84, ‘자기 효능감’이 .92이었다[표 1].

표 1. 성공적 노화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하위요인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3	Cronbach's α
일상적 안녕	문항3	.88	.07	.10	.86
	문항4	.86	.02	.10	
	문항2	.78	-.02	.17	
	문항5	.67	.33	.11	
	문항1	.65	.33	.15	
	문항17	.48	.19	.35	
	문항9	.06	.75	.31	
심리 사회적 안녕	문항12	.18	.69	.36	.84
	문항8	.22	.68	.31	
	문항10	.27	.58	.28	
	문항11	.39	.48	.36	
	문항25	.10	.28	.82	
자기 효능감	문항23	.15	.25	.81	.92
	문항22	.16	.27	.79	
	문항24	.22	.23	.78	
	문항20	.29	.30	.71	
	문항19	.12	.39	.69	
	문항21	.36	.21	.60	
총 문항					.93

##### 2) 노후 준비

노후 준비를 조사하기 위하여 배계희[13]와 김윤정 외[8]의 연구에서 중년층을 대상으로 사용한 노후준비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 준비’ 6개 문항, ‘정서적 준비’ 3개 문항, ‘경제적 준비’ 8개 문항, ‘사회참여 준비’ 7개 문항의 4개 하위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 준비가 높다. 본 연구에서 노후 준비의 각 하위요인의 Cronbach Alpha 값은 ‘신체적 준비’가 .86, ‘정서적 준비’가 .62, ‘경제적 준

비'가 .77, '사회참여 준비'가 .85이었다. 이 가운데 '정서적 준비'의 신뢰도 값이 상대적으로 .62로 낮은 것은 문항 수가 적기 때문일 수 있으나, 전체 Cronbach Alpha 값은 .87로 높은 편이었다[표 2].

표 2. 노후 준비에 대한 요인분석

하위 요인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3	요인4	Cronbach's α
신체적 준비	문항3	.15	.02	.71	.11	.86
	문항1	.24	-.07	.68	.09	
	문항2	.26	.11	.65	-.20	
	문항4	-.08	.03	.62	.24	
	문항6	.30	.08	.60	.26	
	문항5	.28	.11	.57	.03	
정서적 준비	문항10	.17	-.01	.23	.71	.62
	문항9	.23	.05	.21	.61	
	문항11	.17	.18	.06	.55	
경제적 준비	문항19	.73	.15	.16	.12	.77
	문항15	.71	.06	.04	.21	
	문항16	.70	.01	.14	.16	
	문항13	.69	.13	.16	.00	
	문항12	.66	.10	.23	.11	
	문항17	.64	.20	.08	-.09	
	문항18	.63	.10	.14	.18	
사회참여적 준비	문항14	.55	-.03	.18	.24	.85
	문항27	.06	.88	.11	-.06	
	문항28	.04	.87	.06	-.02	
	문항26	.06	.86	.09	-.06	
	문항25	.08	.69	.10	.28	
	문항22	.25	.63	-.03	.03	
	문항24	-.04	.54	.21	.36	
문항20	.09	.40	-.10	.25		
총 문항						.87

###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8.0을 이용하여 응답 자료를 통계 처리하였다. 분석 절차는 빈도분석, 독립표본 t-Test,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공적 노화 인식이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표 3.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항목	하위항목	인원수	백분율(%)
성별 (n=813)	남자	430	52.9
	여자	383	47.1
연령 (n=814)	53-55세	369	45.3
	56-61세	445	54.7
학력 (n=811)	중학교 이하	91	11.2
	고등학교	352	43.4
	대학교 이상	368	45.4
직업 (n=807)	무직	157	19.5
	전문·관리직	336	41.6
	서비스·판매직	250	31.0
	기능직	64	7.9
소득활동유무 (n=811)	유	635	78.3
	무	176	21.7
주관적 경제수준 (n=809)	나쁘다	116	14.3
	보통	495	61.2
	좋다	198	24.5
주관적 건강상태 (n=812)	나쁘다	67	8.3
	보통	432	53.2
	좋다	313	38.5
배우자유무 (n=811)	유	727	89.6
	무	84	10.4
종교유무	유	522	64.4
	무	288	35.6
거주지 (n=811)	도시	645	79.5
	농촌	166	20.5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430명(52.9%)으로 여자 383명(47.1%)보다 더 많았으며, 연령은 평균 56세로, 56세에서 61세가 445명(54.7%), 53세에서 55세가 369명(45.3%)이었다. 학력은 중학교 이하 91명(11.2%), 고등학교 352명(43.4%), 대학교 이상 368명(45.4%)이었으며, 직업은 전문·관리직이 336명(41.6%), 서비스·판매직 250명(31.0%), 무직 157명(19.5%), 기능직 64명(7.9%) 순이었다. 소득활동유무는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635명(78.3%)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보통'이 495명(61.2%), '좋다'가 198명(24.5%), '나쁘다'가 116명(14.3%)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 432명(53.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좋다'가 313명(38.5%), '나쁘다'가 67명(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27명(89.6%)이 대부분이었으며, 종교유무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522명(64.4%)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 288명(35.6%)보다 더 많았다. 거주지는 도시가 645명(79.5%), 농촌 166명(20.5%)으로 대부분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2.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전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에서 평점 3.80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 평점에서는 ‘일상적 안녕’ 4.13(SD=.61), ‘심리 사회적 안녕’ 3.69(SD=.65), ‘자기 효능감’ 3.60(SD=.69)으로 나타나 특히 성공적 노화에서 ‘일상의 안녕’에 관한 인식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공적 노화 인식의 하위 영역인 ‘일상의 안녕’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학력(p<.001), 주관적 경제수준(p<.001), 주관적 건강상태(p<.001), 배우자유무(P<.001)이었다. 즉,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 학력 집단이 중학교 이하 학력 집단보다, 주관적 경제수준이 좋은 집단이 보통 집단과 나쁜 집단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좋은 집단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일상의 안녕’에 관한 성공적 노화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사회적 안녕’ 영역에서는 학력(p<.001), 주관적 경제수준(p<.001), 주관적 건강상태(p<.001), 배우자유무(p<.001), 종교유무(p<.05), 거주지(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 학력 집단이 중학교 이하 학력 집단보다, 주관적 경제수준이 좋은 집단과 보통 집단이 나쁜 집단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좋은 집단이, 배우자가 있고 종교가 있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집단이 배우자가 없고 종교가 없으며 농촌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심리 사회적 안녕’에 관한 성공적 노화의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 영역에서는 학력(p<.001), 직업(P<.05), 소득활동유무(P<.05), 주관적 경제수준(p<.001), 주관적 건강상태(p<.001), 배우자유무(p<.001), 거주지(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 학력 집단이 중학교 이하 학력 집단보다, 전문·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집단이 서비스·판매직과 기능직, 무직보다, 소득이 있고 주관적 경제

수준이 좋은 집단과 보통 집단이 소득이 없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나쁜 집단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좋은 집단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도시 거주 집단이 농촌 거주 집단보다 ‘자기 효능감’에 대한 성공적 노화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

구분	N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 효능감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전체	814	4.13(.61)	3.69(.65)	3.60(.69)						
성별 (n=813)	남자	430	4.13(.63)	3.70(.65)	3.63(.68)					
	여자	383	4.13(.58)	3.68(.65)	3.57(.71)					
연령 (n=814)	53-55세	369	4.16(.56)	3.74(.61)	3.65(.68)					
	56-61세	445	4.11(.64)	3.66(.67)	3.57(.70)					
학력 (n=811)	1	91	3.85(.82)a	3.46(.78)a	3.27(.76)a					
	2	352	4.13(.61)b	3.67(.66)b	3.58(.67)b					
	3	368	4.20(.52)b	3.76(.58)b	3.70(.67)b					
직업 (n=807)	1	157	4.17(.60)	3.61(.69)	3.48(.71)a					
	2	336	4.11(.60)	3.73(.60)	3.67(.65)b					
	3	250	4.14(.61)	3.67(.66)	3.59(.71)ab					
	4	64	4.07(.61)	3.73(.69)	3.54(.73)ab					
소득활동유무 (n=811)	유	635	4.12(.61)	3.71(.64)	3.63(.71)					
	무	176	4.17(.57)	3.64(.68)	3.51(.71)					
주관적 경제수준 (n=809)	나쁘다	116	4.07(.64)a	3.53(.75)a	3.39(.80)a					
	보통	495	4.08(.62)a	3.70(.62)b	3.60(.66)b					
	좋다	198	4.29(.52)b	3.77(.63)b	3.73(.68)b					
주관적 건강상태 (n=812)	나쁘다	67	3.9(.77)a	3.42(.75)a	3.29(.76)a					
	보통	432	4.08(.58)b	3.65(.62)b	3.53(.67)b					
	좋다	313	4.25(.58)c	3.80(.63)c	3.76(.68)c					
배우자유무 (n=811)	유	727	4.17(.56)	3.74(.61)	3.65(.66)					
	무	84	3.74(.82)	3.25(.76)	3.14(.80)					
종교유무	유	522	4.12(.63)	3.73(.66)	3.62(.72)					
	무	288	4.14(.56)	3.62(.62)	3.55(.64)					
거주지 (n=811)	도시	645	4.13(.58)	3.71(.64)	3.63(.69)					
	농촌	166	4.11(.70)	3.60(.68)	3.48(.68)					
			.49	2.03*	2.50*					

\* p<.05, \*\* p<.01, \*\*\* p<.001 a, b, c : Duncan의 사후검증  
 학력 1. 중학교 이하, 2. 고등학교, 3. 대학교 이상  
 직업 1. 무직, 2. 전문·관리직, 3. 서비스·판매직, 4. 기능직

3.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 차이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베이비

봄 세대의 전체 노후 준비는 5점 척도에서 평점 3.16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영역별 평점에서는 '신체적 준비' 3.40(SD=.61), '정서적 준비' 3.43(SD=.65), '경제적 준비' 3.27(SD=.68), '사회참여 준비' 2.52(.78)로 나타나 노후 준비에서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참여'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 준비 하위영역인 '신체적 준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성별(p<.05), 학력(p<.05), 직업(p<.01), 주관적 경제수준(p<.001), 주관적 건강상태(p<.001), 배우자유무(p<.001), 종교유무(p<.001)이었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 학력 집단이 중학교 이하 학력 집단보다, 무직과 전문·관리직 그리고 서비스·판매직 집단이 기능직 집단보다, 주관적 경제수준이 더 좋은 집단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이 나쁜 집단과 보통 집단보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노후 '신체적 준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하위영역인 '정서적 준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연령(p<.01), 학력(p<.001), 직업(p<.05), 주관적 경제수준(p<.001), 주관적 건강상태(p<.001), 배우자유무(p<.001), 종교유무(p<.001)이었다. 즉, 55세 이하 집단이 56세 이상 집단보다, 대학교 이상 학력 집단이 고등학교와 중학교 이하 집단보다 전문·관리직 집단이 무직과 서비스·판매직과 기능직 집단보다, 주관적 경제수준이 보통과 좋은 집단이 나쁜 집단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좋은 집단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노후 '정서적 준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하위영역인 '경제적 준비'는 성별(p<.001), 학력(p<.001), 직업(p<.001), 소득활동유무(p<.001), 주관적 경제수준(p<.001), 주관적 건강상태(p<.001), 배우자유무(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 학력 집단이 중학교 이하 학력 집단보다 전문·관리직 집단이 무직과 서비스·판매직과 기능직 집단보다, 소득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주관적 경제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가 더 좋은 집단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노후 '경제적 준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베이비부머의 노후 준비 차이

구분	N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	경제적 준비	사회참여준비
		M(SD)	M(SD)	M(SD)	
전체	814	3.40(.61)	3.43(.65)	3.27(.68)	2.52(.78)
성별	남자	3.35(.64)	3.47(.65)	3.35(.66)	2.46(.78)
	여자	3.44(.59)	3.39(.64)	3.17(.69)	2.59(.78)
연령	1	3.40(.62)	3.50(.63)	3.27(.69)	2.55(.80)
	2	3.40(.61)	3.38(.65)	3.27(.67)	2.50(.77)
학력	1	3.26(.76)a	3.26(.81)a	3.05(.74)a	2.30(.78)a
	2	3.39(.62)b	3.39(.65)a	3.23(.64)b	2.51(.77)b
	3	3.44(.55)b	3.52(.58)b	3.36(.68)b	2.59(.78)b
직업	1	3.47(.59)b	3.35(.59)a	3.11(.65)a	2.53(.72)ab
	2	3.44(.58)b	3.51(.62)b	3.42(.68)b	2.63(.79)b
	3	3.35(.64)b	3.39(.69)a	3.18(.66)a	2.41(.79)a
	4	3.14(.65)a	3.40(.70)a	3.19(.66)a	2.44(.76)ab
소득 활동 유무	유	3.38(.63)	3.44(.66)	3.32(.68)	2.52(.79)
	무	3.46(.57)	3.41(.60)	3.09(.65)	2.54(.74)
주관적 경제수준	나쁘다	3.06(.66)a	3.12(.73)a	2.57(.72)a	2.33(.66)a
	보통	3.38(.56)b	3.45(.63)b	3.23(.54)b	2.53(.78)b
주관적 건강상태	나쁘다	3.23(.70)a	3.14(.72)a	2.82(.88)a	2.27(.67)a
	보통	3.33(.61)a	3.35(.63)b	3.19(.62)b	2.55(.75)b
배우자 유무	유	3.43(.58)	3.49(.60)	3.31(.64)	2.51(.77)
	무	3.07(.81)	2.89(.82)	2.84(.83)	2.56(.87)
종교 유무	유	3.47(.60)	3.50(.64)	3.30(.70)	2.64(.77)
	무	3.26(.62)	3.32(.64)	3.21(.63)	2.31(.77)
거주지	도시	3.39(.59)	3.43(.64)	3.25(.69)	2.52(.78)
	농촌	3.42(.71)	3.45(.65)	3.33(.61)	2.53(.81)

\* p<.05, \*\* p<.01, \*\*\* p<.001 a, b, c : Duncan의 사후검증  
 연령 1.53-55세, 연령 2.56-61세  
 학력 1. 중학교 이하, 2. 고등학교, 3. 대학교 이상  
 직업 1. 무직, 2. 전문·관리직, 3. 서비스·판매직, 4. 기능직

노후 준비 하위영역인 '사회참여 준비'는 성별(p<.05), 학력(p<.01), 직업(p<.01), 주관적 경제수준(p<.01), 주관적 건강상태(p<.05), 종교유무(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 학력 집단이 중학교 이하 학력 집단보다 전문·관리직 집단이 무직과 기능직과 서비스·판매직 집단보다, 주관적 경제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표 6.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인구 사회학적 변인	성별(1)	-														
	나이(2)	-.04**	-													
	종교유무(3)	.20***	-.02	-												
	거주지1(4)	.04	.04	.05	-											
	경제수준(5)	-.15***	-.00	.04	.01	-										
	건강상태(6)	-.27***	-.10**	.04	-.08*	.33***	-									
	배우자유무(7)	-.05	-.10**	-.02	.06	.25***	-.17***	-								
	소득활동유무(8)	.37*	.13***	.08*	.03	-.14***	-.21***	-.04	-							
	학력(9)	-.25***	-.11**	.01	.14**	.24**	.22**	.22***	-.16***	-						
성공적 노화인식	일상적안녕(10)	.01	-.04	-.00	-.02	.12**	.17***	.16***	-.03	.08*	-					
	심리사회적안녕(11)	-.02	-.03	.10**	.07*	.10*	.17***	.20***	-.10**	.11**	.45***	-				
	자기효능감(12)	-.06	-.03	.06	.09*	.13**	.21***	.19***	-.12**	.17**	.46***	.70***	-			
노후 준비도	신체적준비(13)	.07*	.03	.17***	-.04	.28***	.16***	.13***	.01	.07	.23***	.19***	.20***	-		
	정서적준비(14)	-.06	-.07	.14***	-.03	.18***	.24***	.25***	-.05	.13***	.25***	.36**	.39***	.33***	-	
	경제적준비(15)	-.14***	-.01	.06	-.06	.52***	.27***	.18***	-.18	.16***	.28***	.26**	.31***	.45***	.39***	-
	사회참여준비(16)	.05*	-.03	.20***	-.01	.12**	.04	.00	.04	.13***	.13***	.22***	-.00	.17***	.22***	.24***

1) 성별1=남성  
2) 거주지1=도시  
\* p< .05, \*\* p< .01, \*\*\* p< .001

보통인 집단과 좋은 집단이 나쁜집단보다,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노후 '사회참여 준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성공적 노화 인식이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

##### 4.1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에 따른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 변수들 간의 전반적인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 6]과 같이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주요 변수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다중공선성으로 분석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0.8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신체적 준비 및 정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공적 노화 인식이 노후 준비 가운데 '신체적 준비' 및 '정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표 7]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기 위

하여 노후 준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 배우자유무, 종교유무, 소득활동유무, 주관적 경제수준과 건강상태, 학력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성공적 노화 인식이 노후 준비 하위 영역 가운데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인구 통계학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설명력은 14%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성공적 노화 인식 중 '일상의 안녕'이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일상의 안녕' 인식이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19%로 증가하였으며, '일상의 안녕'이 지니는 설명력은 5%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심리 사회적 안녕'이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전체 설명력은 17%로 증가하였으며, '심리 사회적 안녕' 인식이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4단계에서 '자기 효능감'이 '신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전체설명력은 16%로 증가하였으며, '자기 효능감'이 지니는 설명력은 2%로 나타났다. 즉, '자기 효능감' 인식이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 준비 하위 영역인 '신체적 준비'



표 7. 성공적 노화 인식이 노후 준비(신체적 준비 및 정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

	노후 준비(신체적 준비)				노후 준비(정서적 준비)			
	B (β) (n=780)	B (β) (n=774)	B (β) (n=772)	B (β) (n=774)	B (β) (n=790)	B (β) (n=784)	B (β) (n=781)	B (β) (n=784)
성별1)	.13(.05)**	.11(.05)*	.12(.10)**	.13(.11)**	-.02(-.02)	-.03(-.03)	-.03(-.02)	-.03(-.03)
배우자유무	.17(.07)*	.11(.06)	.13(.07)	.12(.06)	.50(.23)***	.41(.19)***	.37(.17)***	.37(.17)***
종교유무	.17(.04)***	.18(.14)***	.15(.11)**	.15(.12)***	.18(.13)***	.19(-.14)***	.14(.11)**	.15(.11)***
소득활동유무	-.08(-.05)	-.06(-.04)	-.09(-.06)	-.09(-.06)	-.02(-.01)	-.00(-.00)	-.03(-.02)	-.05(-.03)
경제수준	.21(.03)***	.20(.23)***	.22(.25)***	.21(.24)***	.07(.07)*	.07(.07)	.06(.07)*	.06(.06)
건강상태	.09(.03)**	.06(.07)*	.07(.09)*	.08(.09)*	.15(.16)***	.11(.13)**	.10(.11)**	.10(.11)**
학력2)	.06(.07)	.03(.07)	.05(.04)	.04(.03)	.01(.01)	-.04(-.03)	-.02(-.01)	-.05(-.04)
학력3)	.06(.07)	.03(.02)	.04(.03)	.03(.02)	.05(.04)	-.00(-.00)	.01(.01)	-.03(-.02)
성공적 노화 인식	일상의 안녕	-	.23(.26)***				.23(.22)***	
	심리사회적 안녕	-	-	.16(.17)***			.33(.33)***	
	자기 효능감	-	-		.13(.15)***			.32(.35)***
회귀상수	2.11***	1.33***	1.66***	1.79***	2.16***	1.43***	1.30***	1.43***
F	15.54***	20.28***	17.28***	15.96***	15.78***	18.97***	26.79***	27.68***
R2	.14***	.19***	.17***	.16***	.14*	.18***	.238**	.244***

1) 1=남성, 0=여성  
 2) 0=중학교 이하, 1=고등학교, 0=대졸이상  
 3) 0=중학교 이하, 0=고등학교, 1=대졸이상

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성공적 노화 인식 변인은 ‘일상의 안녕’ 5%, ‘심리 사회적 안녕’ 3%, ‘자기 효능감’ 2% 순으로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성공적 노화 인식이 노후 준비 하위 영역 가운데 ‘정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정서적 준비정도에 미치는 설명력은 14%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뒤 ‘일상의 안녕’이 ‘정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일상의 안녕’ 인식이 높을수록 ‘정서적 준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18%로 증가하였고 ‘일상의 안녕’이 가지는 전체 설명력은 4%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심리 사회적 안녕’이 ‘정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전체 설명력은 23.8%이며, ‘심리 사회적 안녕’ 인식이 가지는 설명력은 9.8%이다. ‘심리 사회적 안녕’ 인식이 높을수록 ‘정서적 준비’가 높게 나타났다. 4단계에서 ‘자기 효능감’이 ‘정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자기 효능감’이 가지는 설명력은 10.4%이며, 전체 설명력은 24.4%로 증가하였다. 즉 ‘자기 효능감’ 인식이 높을수록 ‘정서적 준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 준비 하위 영역인 ‘정서적 준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성공적 노화 인식 변인은 ‘자기 효능감’ 10.4%, ‘심리 사회적 안녕’ 9.8%, ‘일상의 안녕’이 4% 순으로 모두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 성공적 노화 인식이 노후 준비(경제적 준비 및 사회참여 준비)에 미치는 영향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공적 노화 인식이 노후 준비 하위 영역 가운데 ‘경제적 준비’ 및 ‘사회참여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성공적 노화 인식이 노후 준비 하위 영역 가운데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인구 통계학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뒤 ‘일상의 안녕’ 인식이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상의 안녕’ 인식이 높을수록 ‘경제적 준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37%로 증가하였으며, ‘일상의 안녕’ 인식이 가지는 설명력은 4%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심리 사회적 안녕’이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심리 사회적 안녕’ 인식이 갖는 설명력은 2%이며, 전체 설명력은 35%로 증가하였다. ‘심리 사회적 안녕’ 인식이 높을수록 ‘경제적 준비’가 높게 나타났다. 4단계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체 설명력은 38%로 증가하였으며, ‘자기 효능감’이 가지는 설명력은 5%로 나타났다. 즉, ‘자기

표 8. 성공적 노화 인식이 노후 준비(경제적 준비 및 사회참여 준비)에 미치는 영향

	노후 준비(경제적 준비)				노후 준비(사회참여 준비)			
	B (β) (n=780)	B (β) (n=774)	B (β) (n=772)	B (β) (n=774)	B (β) (n=790)	B (β) (n=784)	B (β) (n=781)	B (β) (n=784)
성별1)	-.01(-.01)	-.03(-.02)	-.03(-.02)	-.02(-.02)	.14(.10)*	.15(.10)*	.13(.08)*	.14(.09)*
배우자유무	.18(.09)*	.11(.05)	.10(.04)	.09(.04)	-.20(-.08)*	-.23(-.09)*	-.36(-.14)***	-.26(-.10)**
종교유무	.06(.04)	.07(.05)	.04(.03)	.04(.03)	.31(.19)***	.30(.19)***	.29(.18)***	.28(.18)***
소득활동유무	.12(.07)*	.14(.09)**	.10(.06)*	.10(.07)*	.01(.01)	.02(.01)	-.01(-.01)	.00(.00)
경제수준	.48(.50)***	.47(.49)**	.47(.49)***	.48(.49)***	.14(.12)**	.14(.12)**	.13(.12)**	.14(.13)**
건강수준	.07(.07)*	.04(.04)	.04(.05)	.04(.04)	-.01(-.01)	-.01(-.01)	-.05(-.04)	-.04(-.04)
학력2)	.05(.04)	.02(.01)	.03(.02)	.00(.00)	.23(.15)*	.22(.14)*	.20(.13)*	.20(.13)*
학력3)	.02(.01)	-.03(-.02)	-.02(-.01)	-.05(-.04)	.32(.21)***	.32(.20)**	.30(.19)**	.29(.18)**
성공적 노화 인식	일상의 안녕		.25(.22)***			.02(.01)		
	심리사회적 안녕			.21(.20)***			.30(.25)***	
	자기 효능감				.24(.25)***			.18(.16)***
회귀상수	1.23***	.42*	.70***	.65***	1.79***	1.75***	1.10***	1.35***
F	46.87***	50.62***	46.53***	52.11***	8.59***	7.36***	13.53***	9.88***
R2	.33***	.37***	.35***	.38***	.08***	.08***	.14***	.10***

1) 1=남성, 0=여성  
 2) 0=중학교 이하, 1=고등학교, 0=대졸이상  
 3) 0=중학교 이하, 0=고등학교, 1=대졸이상

효능감' 인식이 높을수록 '경제적 준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 준비 하위 영역인 '경제적 준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성공적 노화 인식 변인은 '자기 효능감' 5%, '일상의 안녕' 4%, '심리 사회적 안녕'이 2% 순으로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성공적 노화 인식이 노후 준비 하위 영역 가운데 '사회참여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인구 통계학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설명력은 8%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된 뒤 '일상의 안녕'이 '사회참여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3단계에서는 '심리 사회적 안녕'이 '사회참여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전체 설명력은 14%로 증가하였으며, '심리 사회적 안녕'이 가지는 설명력은 6%이다. 즉, '심리 사회적 안녕'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준비'가 높게 나타났다. 4단계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사회참여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전체 설명력은 10%로 증가하였으며, '자기 효능감'이 가지는 설명력은 2%이다.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준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 준비 하위 영역인 '사회참여 준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성공적 노화 인식 변인은 '심리 사회적 안녕' 6%, '자기 효능감' 2%로 나타났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과 노후 준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성공적 노화 인식이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전국에서 814명의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상의 안녕'에 관한 성공적 노화의 인식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 학력 집단, 주관적 경제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집단,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 사회적 안녕'에 관한 성공적 노화 인식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 학력 집단, 주관적 경제수준이 좋은 집단과 보통 집단,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 종교가 있는 집단, 도시 거주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성공적 노화 인식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 학력 집단, 전문·관리직 종사 집단, 주관적 경제수준이 좋은 집단과 보통 집단,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좋은 집단, 배우자가 있는 집단, 도시 거주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배우자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은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26], 일반적으로 학력, 경제수준,

건강상태는 성공적 노화 하위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20][26].

둘째,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준비'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으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 학력 집단, 주관적 경제수준이 더 좋은 집단,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 배우자가 있는 집단, 종교가 있는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준비'에서는 55세 이하 집단, 대학교 이상 학력 집단, 전문·관리직 집단, 주관적 경제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다 좋은 집단, 배우자가 있는 집단, 종교가 있는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준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 학력 집단, 전문·관리직 집단, 소득이 있는 집단, 주관적 경제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다 좋은 집단,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노후 경제적 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참여 준비'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으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 학력 집단, 전문·관리직 집단, 주관적 경제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좋은 집단, 종교가 있는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월 가구 소득이 노후 준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1], 대부분 학력, 직업, 건강상태가 대부분 선행 연구에서 노후 준비 하위영역에 보다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15][18][21].

셋째, 성공적 노화 인식이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먼저 노후 준비 하위 영역인 '신체적 준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성공적 노화 인식 변인은 '일상의 안녕' 5%, '심리 사회적 안녕' 3%, '자기 효능감' 2% 순으로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 준비 하위 영역인 '정서적 준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성공적 노화 인식 변인은 '자기 효능감' 10.4%, '심리 사회적 안녕' 9.8%, '일상의 안녕'이 4% 순으로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후 준비 하위 영역인 '경제적 준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성공적 노화 인식 변인은 '자기 효능감' 5%, '일상의 안녕' 4%, '심리 사회적 안녕'이 2% 순으로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 준비 하위 영역인 '사회참여 준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성공적 노화 인식 변인은 '심리 사회적 안녕' 6%, '자기 효능감' 2%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 인식이 높을수록 노후를 위한 준비에 보다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부적인 성공적 노화 인식에 따라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고는 있으나[12], 전반적으로 성공적 노화 인식이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1][20][30].

이상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과 경제수준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교육과 서비스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는 대체로 직장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중 상류층 베이비붐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져 왔기 때문에 중,상류층 베이비붐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가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처해 있는 베이비 붐 세대들을 위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참여와 관련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학력이 낮고 건강이 나쁘며 경제수준이 낮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년기 이전부터 다각도로 준비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건강 프로그램, 일자리 마련, 자원봉사 및 여가 프로그램 등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한 보다 차별화된 노후 준비 프로그램들이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한 노후 준비 관련 정책 수립은 앞으로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베이비붐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노후 준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노후 준비의 정도와 유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이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 인식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가 보다 적극적이었음을 볼

때, 앞으로는 민간과 공공 기관에서 노후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실천 방안과 함께 성공적 노화란 무엇인가에 관한 기초적 교육이 먼저 실시됨으로써 노후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 생애과정에 걸쳐서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프로그램이 노년기 이전부터 실시되어진다면, 노후를 준비해 나가는 실천적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전국에 분포된 베이비붐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교적 학력 수준과 직업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들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공적 노화 인식과 노후 준비의 관계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강성욱, 하규수,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12호, pp.121-144, 2013.  
 [2] 강인,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0권, pp.95-106, 2003.  
 [3] 김정아, “우리나라의 세대별 노후준비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베이비부머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64권, pp.7-30, 2014.  
 [4] 김동배,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1호, pp.211-231, 2008.  
 [5] 김동배, 정규형, 이은진, “노인의 과거 노후 준비 정도와 준비유형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58권, pp.325-352, 2012.  
 [6] 김미령, “준고령자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의 삶의 만족도 영향 및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노인복

지연구, 제62권, pp.257-288, 2013.  
 [7] 김미혜, 신경림,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5권, 제2호, pp.35-52, 2005.  
 [8] 김윤정, 최윤희,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24권, pp.197-213, 2004.  
 [9] 문숙재, 김순미, 김연정,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제3호, pp.223-236, 1996.  
 [10] 박지승, 베이비부머의 노후소득준비 현실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호, pp.63-72, 2013.  
 [11] 박현식,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후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8권, pp.281-302, 2012.  
 [12] 박현식, “필리핀 베이비부머 교민의 성공적 노후준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0호, pp.302-310, 2013.  
 [13] 배계희,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학 석사학위논문, 1988.  
 [14] 배문조, “성인들의 노화사실인지에 따른 노후준비의식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노인복지연구, 제58권, pp.111-131, 2012.  
 [15] 백은영,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2호, pp.357-383, 2011.  
 [16] 백지은, 최혜경,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 pp.1-16, 2005.  
 [17] 안정신, 강인, 김윤정,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3권, 제4호, pp.225-245, 2009.  
 [18] 유용식,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738-747, 2013.  
 [19] 이소정,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설계 지원서비스의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0] 인은영, 김찬우, “중간소득 이하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

- 회복지조사연구, 제44권, pp.25-52, 2015.
- [21] 정경희, *베이비 부머의 가족생활과 노후 생활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5호, pp.40-49, 2012.
- [22]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23] 통계청,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 사회적 특성분석*, 2012.
- [24] 통계청, *2015 한국의 사회지표*, 2016.
- [25] 한경혜, 우석진, 최혜경, 하정화, *베이비부머 삶의 변화와 지속성, 2010-2012*,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2차년도 보고서, 서울대학교 노화·고령화 연구소와 메트라이프 재단, 2013.
- [26] 홍성희, 곽인숙, "베이비부머세대의 성공적 노화 :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6권, 제4호, pp.69-92, 2012.
- [27] P. B. Baltes, M. M. Baltes, A. M. Freud, and F. R. Lang, *The measure of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SOC) by self-report*, Berlin, Germany: Max Planck Institute for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1999.
- [28] B. J. Fisher,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and generativity in later life," International Journal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41, No.3, pp.239-250, 1995.
- [29] M. W. Parker, J. M. Bellis, P. Bishop, M. Harper, R. M. Allman, C. Moore, and P. Thompson, "A multidisciplinary model of health promotion incorporating spirituality into a successful aging intervention with African American and white elderly groups," The Gerontologist, Vol.42, pp.406-415, 2002.
- [30] J. Quadagno, *Aging and the Life Course: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Mcgraw Hill New York: Pantheon Books, 2010.
- [31] J. W. Rowe and R. L. Kahn,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1998,
- [32] C. D. Ryff,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12, pp.35-55, 1989.

## 저 자 소 개

강 인(In Kang)

정희원



- 199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족관계학 석사)
- 199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문학 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서울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전공 교수

<관심분야> : 노후생애설계, 성공적 노화, 노인복지